신기록 달성·다관왕 배출…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 빛났다

광주, 양궁 김준서 최우수 선수 선정…75개 메달 획득
전남, 박세훈 대회 신·문승유 2관왕 등…52개 메달 수확

GYEONGNAM 2025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4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체육 유망주들의 땀방울로 빛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료됐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이번 소년체전에서 신기록 달성, 다관왕 배출, 수년만의 메달 획득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은 총 75개(금 19개, 은 24개, 동 3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해(58개) 대비 메달 17개(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더했다.

광주 첫 다관왕 주인공인 최원재(J리듬&체조클럽)는 체조 남자 U12 링, 평행봉, 철봉, 개인종합 1위를 기록하며 4관왕을 차지했다. 도마와 마루에서도 은메달 2개를 더했다. 송채연(광주체중 3)도 체조 여자 U15 이단평행봉과 평균대에서 금 2개를 목에 걸었다.

체조에 이어 양궁에서도 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남자 U15 40m 경기에서 김준서(광주체중 2)가 349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준서는 남자 U15 50m와 개인전 경기에서도 은메달 2개를 더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체조 4관왕 최원재, 바둑 여자 U12 단체전 금메달을 딴 김리원(각화초5), 배드민턴 여자 U15 단체전 1위 엄유주(광주체중 2), 골프 여자 U12 단체전 2위 장하은(정암초 6)도 최우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수년만의 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연 종목도 있었다.

복싱 남자 U15 핀급 경기에서 이창욱(광주체중 3)이 2008년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후 17년 만에 광주 복싱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배드민턴에서는 홍수지와 엄유주(이상 광주체중 2), 김민·이윤서(이상 광주체중 3)로 이뤄진 광주 선발팀이 여자 U15 단체전에서 경기선발을 3-2로 이기며 2017년 안세영 우승 이후 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U15 금메달을 획득했다.

씨름 남자 U12 역사급 경기에서는 박유찬(화정남초 6)이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탁구 남자 U12 단체전에서는 송정초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얻어내며 1997년 제26회 소년체전에서 대성초가 메달을 획득한 이후 28년 만의 탁구 남자 U12 메달 기록을 냈다.

총 52개(금 13개, 은 13개, 동 26개)의 메달을 획득한 전남 선수단도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고 2관왕을 배출해냈다.

사격 남자 U15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박세훈(나주중 2)은 580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썼다. 박세훈은 공기권총 단체에서 전남선발 김한슬(나주중 2), 신용수(순천향림중 3), 최지호(나주중 2)과 함께 1680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더하기도 했다.

문승유(영암초6)는 수영 여자 U12 평영 50m와 평영 100m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고 남자 U12 자유형 100m와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정근민(사창초 6)이 각각 1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전남 최우수 선수로는 수영의 정근민과 사격의 박세훈, 바둑 U12 황준서(웅천초6)와 여자 U15 김나연(한국바둑중3)이 선정됐다.

다만 전남 선수단 소년체전 성적은 지난해에 이어 다소 부진하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3년)에서 총 76개(금 26개, 은 19개, 동 31개)의 메달을 기록했지만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67개(금 20개, 은 13개, 동 34개), 올해 52개를 따내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메달 역시 26개→20개→13개로 줄어들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정근민(사창초6)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US여자오픈 '역대 챔피언' 전인지·박성현·이정은 동반 플레이

유해란, 이와이·노예림과 한 조

전인지와 박성현, 이정은이 여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1·2라운드에서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발표된 제80회 US여자오픈(총상금 1200만달러) 1·2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이들 3명은 한 조에 편성돼 29일 오후 10시 2분 미국 위스콘신주 에린의 에린 힐스 골프 코스(파72) 1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전인지와 박성현, 이정은은 모두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들이다.

전인지는 2015년, 박성현은 2017년, 이정은은 2019년 각각 정상에 올라 한국 선수들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인 US여자오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 1·2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끼리 묶인 조는 이 조가 유일하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승을 거두고 현재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유해란(5위)은 이와이 아키에(일본), 노예림(미국)과 29일 오후 9시 29분 1번 홀에서 출발한다.

3월 포드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노리는 세계랭킹 7위 김효주는 가비 로페스(멕시코), 리오나 머과이어(아일랜드)와 30일 오전 3시 14분 1번 홀에서 티샷을 날린다.

올해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자 김아림은 앨리슨 코푸즈(미국),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과 29일 오후 10시 2분 10번 홀부터 경기한다.

세계랭킹 10위 고진영은 2022년 US여자오픈 챔피언 이민지(호주), 올해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 우승자이자 LPGA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68점)인 사이고 마오(일본)와 이틀간 함께 움직인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찰리 헐(잉글랜드), 렉시 톰프슨(미국)과, 세계랭킹 2위 지노 티띠꾼(태국)은 릴리아 부, 로즈 장(이상 미국)과 각각 1·2라운드를 함께 펼친다.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디펜딩 챔피언 사소 유카(일본), 지난해 US여자 주니어와 US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석권한 리앤 멀릭시(필리핀)와 같은 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지난 시즌 공동 다승왕(3승) 배소현은 이미향, 스즈키 아이(일본)와 같은 조에 편성됐고, 황유민은 그레이스 김(호주), 가와모토 유이(일본)와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베테랑' 황연주, 도로공사에 새 둥지

여자 프로배구 베테랑 아포짓 스파이커 황연주(38)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도로공사 구단은 28일 "현대건설 구단과 황연주 이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황연주는 V리그 원년인 200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해 2010-2011 시즌부터 현대건설에서 뛰었다.

올해로 현대건설에서 활약한 지 15년을 맞이한 황연주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V리그 10주년과 20주년 역대 베스트 7 아포짓 스파이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황연주는 "오래 있었던 팀을 떠나게 됐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양 구단에 감사하다. 베테랑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구단의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연주는 지난 2023년 4월 현대건설과 계약기간 2년, 총 2억2천400만원에 FA 잔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2025시즌으로 계약이 종료한 뒤 현대건설은 새 시즌 구상에서 황연주를 제외했고, 도로공사가 황연주에게 손을 내밀었다.

황연주의 2024-2025시즌 성적은 정규시즌 9경기 출전에 53득점, 공격 성공률 40.98%다.

황연주는 다음 주 도로공사의 연고지인 김천으로 내려가 선수단에 합류해 인사한 뒤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단, 전국종별육상선수권 '금빛 질주'

광주·전남 체중고, 메달 석권…진도군청 금 4개 획득

전국 육상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지난 23일 끝난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중·고부 경기에서 전남체중과 광주체고가 선전했다.

남중부 1500m 경기에서 김강석(전남체중)이 4분20초7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3000m 경기에서도 한준상(전남체중)이 9분50초12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00m 계주에서는 전남체중(김정원, 박도원, 정유찬, 김이랑)이 3분35초08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중부에서도 전남체중(양예림, 김예빈, 박윤서, 안하람)이 4분16초33으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남고부 경기에서는 광주체고의 활약상이 뚜렷했다.

400m에서 장근오가 48초91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고 황원우, 김찬, 오희성, 장근오는 1600m 계주에서 1등으로 피니쉬 라인을 넘었다. 높이뛰기에서는 윤준호가 2m04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 400m는 전남 선수들이 메달을 석권했다. 최지우(광양하이텍고)가 57초05로 가장 먼저 질주를 끝냈고 뒤이어 신규리(전남체고)가 57초69로 2위를, 박채경(전남체고)이 58초09로 3위를 차지했다.

1600m 계주에서는 전남체고(신규리, 김유림, 정해진, 김연우)가 4분05초56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광주체고(이소은, 이혜인, 정은정, 조수빈)가 4분06초82로 2위를, 광주중앙고(정서현, 정예음, 이소연, 김채아)가 4분07초00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단뛰기에서는 서예지(광양하이텍고)가 12m25로, 포환던지기에서는 문혜솔(전남체고)이 13m56로 각각 금을 획득했다.

진도군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며 실업팀 중 가장 많은 금을 수확했다.

임태건이 남자일반부 800m에서 1분51초33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서빈도 여자일반부 800m(2분12초03)와 1500m(4분31초22) 경기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남보하나가 3000mSC(장애물)를 10분47초29로 질주를 마치며 금을 더했다.

해남군청의 이은빈은 100m 질주를 11초99에 끝내며 1위를, 목포시청의 박서진은 해머던지기에서 58m54를 던지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차민수, 문경단오대회 한라장사

영암군민속씨름단 차민수〈사진〉가 문경단오장사대회에서 한라장사(105㎏ 이하)에 올랐다.

차민수는 28일 경북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문경단오장사씨름대회 한라급 장사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국희(양평군청)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차민수는 첫판과 두 번째 판에서 연달아 들배지기에 성공한 뒤 세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를 허용했다.

네 번째 판에서 다시 한번 들배지기로 상대를 눕힌 차민수는 통산 9번째 한라장사 트로피를 차지했다.

차민수는 앞서 8강에서는 이홍찬(증평군청)을, 준결승에서는 박민교(용인특례시청)를 각각 2-1로 꺾고 장사결정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